

어머니의 미숙아에 대한 고정관념, 낙관주의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Prematurity Stereotype, Optimism and Parenting Stress*

목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 아동 주거학과
부교수 김 경 희

Dept. Consumer, Child & Housing, School of Ecology, Mokpo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Kyunghee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study of prematurity stereotyping is important because the optimal development of premature infants may be threatened by the operation of the stereotype. The study was conducted in which mothers were asked to rate unfamiliar infants shown on videotapes. The infants were described as either full term or premature and as either male or female. Each mother was asked to rate the infant on 23, 7-point adjective scales(S-KISS) and to answer several other questionnaires(LOT, PSI).

In the study, infants labeled premature were rated more negatively than were infants labeled full term, but infants labeled male and female were rated similarly. The behavioral implications for child rearing as a result of this "prematurity stereotyping" were considered. Correlational analyses revealed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prematurity stereotyping and parenting stress, optimism and parenting stress. Optimism effects parenting stress.

* 본 논문은 목포대학교 기성희 해외연수 및 라인장학재단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들어 현대의학의 공학적, 기술학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생물학적인 위험을 가지는 집단 중에서 미숙아들의 생존률이 증가되었다. 재태기간과 관련 없이 출생시 체중이 2.2kg이하의 신생아인 미숙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의 출생률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년 6-8%를 보인다(홍창의, 1988; Marlow & Redding, 1988). 흔히 저체중 출생을 수반하는 미숙아의 생존률의 증가는 이들 영아들에 대한 관심이 생존이라는 일차적인 문제에서 심리학적 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정상적인 발달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게 하였다. 즉, 미숙아들의 삶의 질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었다(Goldberg, Perrota, Minde, & Corter, 1986).

국내에서는 1970년대부터 미숙아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간호학적인 측면에서 실시되었다. 비록 그 수는 적지만 미숙아에 대한 임상적 고찰(김태임, 1991; 왕순임, 1986)이나, 미숙아와 정상아의 영유아기 성장발달 상태의 비교연구(박영애, 1985), 미숙아와 정상아의 지각과 애착을 비교한 연구(구미향, 1994; 김소영, 1989; 왕순임, 1986),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아 상호작용과 모성정체감 인지에 대한 연구(권미경, 1987; 백미례, 1990; 권인수, 1992; 조결자, 1993) 등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즉, 미숙아의 행동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만삭아에 대한 지각과 다르고, 미숙아의 신호에 어머니들의 반응이 만삭아에 대한 신호의 반응보다 느리고 상호성의 정도가 낮다고 하였다. 또한 미숙아를 가진 어머니들의 모성정체감은 만삭아를 가진 어머니들보다 낮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결과에서 미숙아의 행동특성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지는 만삭아의 행동특성에 대한 인지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들의 사고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다른 행동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

머니의 행동태도를 결정하는데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Stern과 Karraker(1988)는 미숙아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미숙아 고정관념에 관한 실험을 하였다. 어머니들에게 영아가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필름을 보여주면서 한 영아는 미숙아로 제시하고 다른 필름의 영아를 만삭아로 제시하였을 때, 어머니들이 영아의 재태기간에 따른 차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들은 미숙아를 만삭아와 다르게 평가하였다. 어머니들은 미숙아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느리게 행동하고, 주의집중력이 낮으며, 작고 우둔하다고 평가하였다. Stern은 필름의 영아가 만삭아임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재태기간을 다르게 하여 제시하였을 때, 어머니들이 미숙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미숙아 고정관념(Prematurity Stereotype)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어머니들이 미숙아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고정관념이 미숙아와 만삭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아보는 연구(Stern & Karraker, 1990)에서 미숙아를 가진 어머니 뿐만 아니라 만삭아를 가진 어머니들도 미숙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모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즉, 미숙아 고정관념의 정도가 높을수록 모아 상호작용의 빈도가 적고 소극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며, 이는 미숙아의 어머니와 만삭아의 어머니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미숙아에 대한 어머니의 고정관념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미숙아에 대한 고정관념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자녀의 행동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양육행동의 인지적 측면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와 80년대 아동발달 연구를 주도했던 정보처리이론, 인지 및 사회인지 연구의 영향으로 부모의 인지가 양육행동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고 양육행동을 중재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들의 인지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Mills & Rubin, 1990).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부모의 신념은 아동발달 전반에 관해 부모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신념에는 아동발달에 관한 여러 가지 귀인, 도식, 생각, 판단, 개념 등이 포함되며(Miller & Ottinger, 1988),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Goodnow, 1988), 비교적 안정된 사고 형태의 하나로서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이보연, 1992). 아동행동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정확하지 못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아동을 확대하는 등 역기능적인 부모-자녀관계를 나타내며(Azar, Robinson, Hekimian, & Twentyman, 1984), 부모의 신념은 부모행동을 통해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에는 인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행동을 중재하고, 반영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됨에 따라,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생각하고, 이러한 부모의 생각이 자녀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부모 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사회변동에 따라 가족 특성 중에서도 부모역할의 변화, 특히 어머니의 역할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부모역할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Abidin, 1990)에 따르면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행동은 부모와 아동 그리고 상황과의 복합적인 작용에 따라 발생된다고 한다. 부모의 인지양식과 관련하여 아동행동에 대한 부모의 평가가 아동의 발달수준과 거의 같으며 아동의 연령발달에 따라 부정적이 되는 경향이 있고, 일반적으로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격심리학자들은 성격의 특성이 개인의 행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삶에 대한 성격적 특성의 하나인 낙관주의를 들 수 있다. Marshall, Wortman, Kusulas, Hervig 와 Vickers(1989)

은 낙관주의가 긍정적 사고와 외향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즉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문제를 표현하면서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Scheier와 Carver(1985)는 낙관주의 성격의 소유자들은 자신에게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며, 그들의 삶에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 조정 능력이 있으며,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볼 때, 낙관적 성격의 어머니는 문제에 직면하여서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것이며, 이러한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자녀양육의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것이고 또한 미숙아가 출생시기가 이르다하여서 분만예정일에 태어난 아기와 다른 행동특성을 갖는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미숙아에 대해서도 긍정적 성장발달을 기대할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어머니의 낙관주의는 미숙아 고정관념과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는 양육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것을 조사한 연구들은 많은 반면, 양육스트레스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인 부모 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연구는 거의 드물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분만예정일 보다 이른 시기에 출생한 아기를 갖고 싶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환경과 개인적 특성의 영향으로 미숙아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미숙아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지적 특성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건강한 아동을 갖고 싶은 어머니들의 사고와 관련이 있는 미숙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미숙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아보고 이 변인이 어머니의 낙관주의와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미숙아 고정관념이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들의 영아에 대한 선호성, 인지성, 사회성, 신체성, 행동성, 잠재성의 고정관념이 영아의 성과 재태기간(만삭아, 미숙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어머니들의 미숙아 고정관념, 낙관주의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3. 어머니들의 미숙아 고정관념과 낙관주의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미숙아 고정관념(Prematurity Stereotype)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미숙아를 37주 이하의 재태기간을 가지고, 출생시 체중이 2,500g이하이며, 47cm이하의 신장 및 미숙한 행동을 보이는 영아로 정의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태기간이 38주 이하이고 출생시 체중이 2500g이하의 영아를 말한다(김미정, 손동우, 장영표, 차한, 최중환, 윤종구, 1990). 본 연구에서는 예정일 보다 1개월 일찍 태어난 영아를 미숙아라고 명명하였다.

저체중 출생아와 미숙아의 출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미정 등, 1990). 또한 급속한 의료기술의 진보에 의하여 신생아의 사망률은 저하하였고, 반면에 생존율이 높아졌다(조결자, 1993). 이러한 현상은 미숙아의 행동과 능력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 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1.5kg이하로 출생한 신생아는 정상적인 분만 예정일에 기대되는 신체적인 발육에 도달할 때까지 적어도 8주 동안 병원에 있어야 한다(Minde, 1993). 만삭아가 분만한지 2일에서 3일 후면 퇴원을 하고 모친과 접촉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미숙아는 출생 시부터 모친과의 분리기간이 매우 길다. 또한 모친과 영아의 결속과 접촉행동에 장애를

받거나, 지연되며, 통합된 자극에서 분리된다(조결자, 1993).

미숙아와 만삭아의 행동의 차이에 대하여 Hanson(1984)는 미숙아가 만삭아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본다. 즉 미숙아는 38주에서 40주 동안 정상적으로 태내발달과정을 거쳐 출생한 만삭아와는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유기체의 질적인 차이로 간주된다. Holmes와 Rahe(1967)등의 연구에서는 미숙아의 생후 초기의 낮은 반응성과 상호성에 대한 원인이 미숙아의 신체적인 미숙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조기 출산과 관련된 요인들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만삭아이면서 질병으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영아와 미숙아의 행동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면서, 미숙아와 정상아와의 차이가 오랫동안 모친과의 격리와 신체적인 질병에 의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미숙아와 만삭아의 상호작용에서의 차이는 신체적인 미숙함에 기인하기 보다 초기의 모아 상호작용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숙아와 모친과 만삭아와 모친의 상호작용에 영아의 생물학적 성숙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미숙아의 출생은 산모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긴장 및 불안을 가져다 주며 이러한 불안감은 몇 일 혹은 몇 주간 지속된다(Aguilera, 1974). 일반적으로 산모들은 병원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가진다. 그들에게 새로이 부가된 책임감에 대한 역할 변화를 느끼기 때문에 아무리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모는 당황함과 더불어 다소 불안감을 느낀다. 이러한 불안감은 초산부에게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며, 미숙아를 분만한 어머니는 산후 불안감과 동시에 그녀의 변화된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뿐 아니라 스스로 아기를 돌볼 수 없음을 느낀다(Hemilton, 1974).

국내의 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최상순과 백승남(1975)의 연구에서 미숙아 분만으로 인한 산모의 정서반응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응답자중 83%가 불안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Owens(1999)의 연구에서는 과거에 미숙아를 분만한 경험

유무에 따라서 불안반응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즉 과거에 미숙아를 분만한 경험이 있는 산모는 영아의 양육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며 미숙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아를 보거나 영아의 상태에 대해서 듣는데 더 적극적이며, 또한 미숙아에 대한 위협을 현실로 인정하며 영아의 상태나 경과를 계속적으로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덜 불안해 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에 있어서는 자존심의 상실, 죄책감, 내적 열등감을 가질 수 있으며, 미숙아를 다루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어머니 역할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소영(1989)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영아 돌보기 활동에서 만삭아에 대해서는 수유하기, 능숙하게 기저귀 갈아주기, 능숙하게 옷갈아 입혀주기 등 단순한 영아 돌보기 뿐만 아니라 좋은 엄마 되어 주기 같은 어머니 다운 마음 가짐 등에서 자신 있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숙아를 가진 어머니는 영아 돌보기 활동에서 젖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단순한 양육행동에서 만삭아와 마찬가지로 자신있게 행동하지만 좋은 엄마 되기라는 마음가짐에서는 만삭아의 어머니보다 자신없어 하였다고 한다.

Stern과 Hildebrandt(1984)는 미숙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미숙아 고정관념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미숙아에 관한 지식과 관련하여 부정적 고정관념이 아동의 인지적 능력과 행동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Stern & Karraker, 1988, 1989a)에서는 미숙아의 어머니와 만삭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미숙아 고정관념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미숙아라고 불리워진 영아의 필름을 보고 각 행동영역에 해당하는 단어와 가까운 정도에 표시하도록 하고, 만삭아라고 불리워진 영아의 필름을 보고 각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어머니들은 미숙아가 만삭아보다 더 약하며, 더 부끄러워하고, 더 울며, 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놀며, 덜 주의집중하고, 더 느리며, 더 조용하고, 더 힘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어느 영아를 가지고 싶

어하는가의 질문에서 이들은 만삭아를 미숙아보다 더 갖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들에서 만삭아 어머니와 미숙아 어머니 모두 미숙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Frodi, Lamb, Leavitt, & Konovan, 1978; Miller & Ottinger, 1986; Stern & Hildebrandt, 1984; Stern & Karraker, 1988, 1989a).

부정적 신념은 성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영아특성과 관련이 된다(Stern & Hildebrandt, 1986; Stern & Karraker, 1990).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신념을 미숙아 고정관념(Prematurity Stereotype)이라고 하였다.

미숙아 고정관념(Prematurity Stereotype)에 관한 연구는 미숙아의 적절한 발달이 이러한 신념의 작용에 의하여 위협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요하다. 부정적 신념(negative belief)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기대 확인적 과정 모델(A Model of Expectancy Confirmation Processes: Darley & Fazio, 1980)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성인의 미숙아에 대한 편견이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성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고 영아의 행동에 대한 성인의 해석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 모델을 통해 성인의 편견이 영아로 하여금 기대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미숙아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기대 확인적 과정의 효과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성인의 미숙아에 대한 기대는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현실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2. 미숙아 고정관념과 낙관주의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부모인지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외현적 행동을 근거로 하여 행위자의 내적 상태를 추론하는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에 기초한 것이다. 귀인이론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념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조망을 제공한다(Dix, Grusec, 1985; Dix, Ruble, Grusec, & Nixon, 1986; Dix, Ruble & Zambarano, 1989). 귀인이론에서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자는 아니며,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자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가족 구성원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가치롭게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Dix et al., 1985; Goldberg, 1977; Lau & Russell, 1980; Regan, Strauss, & Fazio, 1974; Taylor, 1983). 부모들은 자녀가 친구들과 싸우거나, 혹은 위축된 행동을 보일 때 자녀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러한 행동기저에 깔린 욕구나 동기를 추론하여 반응한다고 본다.

Nisbett과 Ross(1980)에 의해 제안된 인지모형에서는 부모의 이와 같은 인식적 편견이 문화적 가르침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에서 볼 때, 어머니들은 아들을 선호하고 또한 미숙아보다 만삭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만삭아의 능력을 미숙아의 능력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많다. 연구보고에서도 이러한 어머니들의 미숙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발견되었다. Minde(1993)는 4세의 미숙아들과 만삭아들을 비교하였을 때, 미숙아가 만삭아보다 행동장애의 가능성이 4배가 높았다고 하였고, Silva(1984)의 연구결과는 부모와 교사의 보고에서 미숙아들이 5세와 9세때에 만삭아 집단보다 현저하게 높은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Goldberg(1990)의 연구에서는 부모에 의한 행동보고에서 미숙아들이 사회정서적인 면에서 만삭아 보다 부정적으로 평정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미숙아들의 인지적인 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연대기적 연령(Chronological age)을 통제하고 비교하였을 때, 표준화된 검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보여 준다(Cmic et al., 1983). 그러나 수정연령(Corrected age)을 통제하여 비교하면 12개월 이전에는 미숙아의 수행이 만삭아보다 낮으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만삭아와 유사한 수준의 수행을 보여, 수정연령을 통제하고 비교하였을 경우, 4세의 미숙아 지능과 신체적으로 건강한 만삭아는 유사하다(Minde, 1993).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세상과 만난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을 Scheier와 Carver(1985)는 낙관적 성격의 소유자라고 불렀다. 이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좋

은 결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제에 직면해서도 긍정적 대처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스트레스를 덜 경험한다고 한다. Stern, Olexa, Kim, Moritzen과 Vellutino(1999)의 연구에서는 미숙아 고정관념과 어머니의 낙관주의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양육스트레스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어머니의 낙관주의는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미숙아 고정관념과 낙관주의는 미숙아 취약성 인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부모의 인지양식과 관련하여 아동행동에 대한 부모의 평가가 아동의 발달수준과 거의 같으며, 일반적으로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이로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 같다. Goodnow(1988)와 Knight(1985), 그리고 Sameroff와 Feil(1985)등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신들이 일관성 있고, 애정적, 그리고 낙천적인 양육자로 행동할 수록 자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고, 자녀양육에 관하여 스트레스를 낮게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동에 관한 성인의 긍정적인 편견에 대해 Knight(1985)는 '발달에 관한 낙천주의자'라고 불렀으며 Goodnow(1988)는 부모역할의 과업을 계속하도록 부모들을 허락하는 '기능적 편견(functional bias)'이라고 하였다. 부모의 지적 평가와 관련하여 연구자들(Christensen, Philips, Glasgow & Johnson, 1983; Forehand, Wells, McMahon, Griest & Rogers, 1982)은 아동의 문제행동은 어머니가 문제행동을 더 심각한 것으로 과잉지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행동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양육스트레스와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은 Abidin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도구는 부모역할하기, 즉 자녀를 양육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부모, 아동, 그리고 상황요인등 다차원적으로 구성하여 측정하고 있다. 자녀의 행동특성에 대한 부모의 지각과 부모로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지각정도,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상호관련이 있다(김태련, 박랑규, 이경숙, 1991; 송주미, 1992). 즉, 자폐아

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고하에 따른 아동능력 지각 정도에서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부모 모두 아동들의 실제 치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보다 현저하게 자신의 아동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Schaughency와 Lahey(1985)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이상성에 대한 부모의 지각이 아동의 실제 능력에 대한 지각이라기 보다는 부모의 개인적인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미숙아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부모의 낙관적 성향과 관계가 있고 이러한 부모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조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인천, 광주, 목포에 거주하는 15개월 미만의 만삭아를 가진 어머니 76명이다. 연구대상은 유치원, 어린이 집의 교사를 통해 15개월 미만의 영아를 가진 어머니들로 선정하였다. 주소를 입수하여 아동학 전공자와 본 연구자가 대상어머니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준비한 실험용 필름을 보여주고 반응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5명의 어머니와 5명의 대학생에게 연구자가 제작한 실험용 필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연구자가 번안한 S-KISS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문항의 이해정도를 파악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어머니의 집에 전화로 연구참여요청을 하고 약속시간을 정한 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방문시간에 가정에는 연구대상 어머니 그리고 영아가 있었다. 어머니가 실험용 필름을 보는 동안 영아는 어머니 곁에서 놀았다. 실험용 척도는 필름을 보고 난 후 어머니들에게 각 문항의 정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낙관주의와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연구대상 영아가 잘 놀고 있거나 잠잘 경우에만 그 자리에서 표시하였고, 보채거나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음날 수거하였다.

2. 측정도구

1) 미숙아 고정관념(Prematurity Stereotype)

미숙아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영아의 실험용 필름 2개와 S-Kiss(Stern-Karraker Infant Stereotyping Scale, 1988)이다. 실험용 비디오는 Stern, Olexa, Kim, Moritzen과 Vellutino(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필름의 영아와 같게 하기 위하여 Stern의 영아용 까운, 장난감을 그대로 한국 영아에게 사용하여 실험용 필름을 제작하였다. 실험용 필름 2개의 영아는 분만예정일에 태어난 5개월된 남아 2명이었다. 각 영아는 영아의 가정에서 영아용 의자에 앉아 실험용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이를 비디오로 제작하여 실험용 자극 비디오로 제시하였다. 비디오를 본 후, 어머니가 본 영아의 성별과 출생시기를 실험자가 계획한 과정에 따라 미숙아 남아 또는 만삭아 남아, 미숙아 여아 또는 만삭아 여아라고 어머니들에게 알려준 다음 S-KISS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실험용 필름1과 2를 보여주는 순서는 다르게 하여 필름1을 보여주고 난 후 2를 보여주었거나, 필름 2를 보여주고 난 후 1을 보여주거나 하였다.

S-Kiss는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되어있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6이었다. 본 척도는 6요인으로 구분된다. 영아선호성을 알아보는 문항은 원한다-원하지 않는다, 가까워지고 싶다-멀리하고 싶다 등의 4문항이며 Cronbach's alpha 계수는 .88이었다. 영아인지성은 우둔하다-영리하다 등의 3문항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는 .50이며, 영아 신체성은 작다-크다 등의 3문항으로 Cronbach's α 계수는 .49이었다. 영아 사회성은 적극적이다-수동적이다 등의 3문항이며 Cronbach's α 계수는 .56이고, 영아행동성은 느리다-빠르다 등의 5문항으로 Cronbach's α 계수는 .62이며, 그리고 잠재성은 약하다-강하다 등의 4문항으로 Cronbach's α 계수는 .45이었다.

2) 낙관주의(Optimism)

낙관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LOT(Life Orientation Test, Scheier & Carver, 1985)를 번안하여 사용하였

다. LOT는 전체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문항은 '언제나 긍정적인 면을 본다'와 같은 긍정적 사고를 측정하는 문항들이며, 4문항은 부정적 사고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은 결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와 같다. 본 도구의 반응점수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0)에서 매우 동의한다(4)로 되어 있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는 .82이다.

3)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 (1990)의 부모양육스트레스 목록표(PSI :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1-12세용)를 사용하였다. 총 36문항(Cronbach's $\alpha = .85$)이며 부모의 디스트레스 영역(Cronbach's $\alpha = .73$), 부모-아동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영역(Cronbach's $\alpha = .86$), 부모역할스트레스 영역(Cronbach's $\alpha = .73$)이 각각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측정도구는 김경희(1998)가 번안,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반응점수는 확실히 동의함(0)에서 확실히 동의할 수 없음(4)으로 되어 있다.

3. 자료분석

미숙아 고정관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아의 인지성, 사회성, 행동성, 신체성, 선호성, 잠재성 변인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아의 성(sex label)과 재태기간(full term label infant, premature label infant)에 따른 Two-way MANOVA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유의한 결과를 발견한 독립변인에 대해서만 Univariate MANOVA를 실시하였다. 미숙아 고정관념과 낙관주의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미숙아 고정관념과 낙관주의가 양육스트레스에 주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결과는 연구문제에 따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들의 영아에 대한 선호성, 인지성, 사

회성, 신체성, 행동성, 잠재성의 고정관념이 영아의 성과 재태기간(만삭아, 미숙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미숙아 고정관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아의 재태기간을 다르게 명명한 영아의 필름을 보고 평가한 어머니의 미숙아 고정관념의 일반적인 경향은 다음 <표 1>과 같다. 미숙아 고정관념은 선호성(Like), 인지성(Cognitive), 신체성(Physical), 사회성(Social), 행동성(Behavior), 잠재성(Potent)으로 구분된다. 미숙아 고정관념이 영아의 성(여아, 남아)과 재태기간(미숙아, 만삭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wo-way M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숙아 고정관념은 영아 재태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성에 따른 차이와 성과 영아 재태기간에 따른 상호작용의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성별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으나 미숙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영아의 어떠한 특성에서 발견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Univariate M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어머니들은 선호성, 인지성, 신체성, 사회성, 행동성, 잠재성에서 만삭아와 미숙아를 다르게 인지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표 1>의 평균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어머니들은 미숙아보다 만삭아를 더 좋아하고 있으며, 만삭아가 미숙아보다 인지력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신체적 크기에서도 만삭아가 미숙아보다 크고 힘이 있다고 하였으며, 만삭아가 미숙아보다 사회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 만삭아가 미숙아보다 행동성이 활발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잠재성도 많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Epps, 1993; Frodi, Lamb, Leavitt & Donovan, 1978; Miller & Ottinger, 1986; Stern & Karraker, 1988, 1989a, 1992)에서 어머니들은 미숙아에 대해 부정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미숙아에 대해 만삭아보다 행동이 느리고, 주의집중력이 떨어지며, 덜 똑똑하고,

<표 1> 영아의 성과 재태기간에 따른 미숙아 고정관념의 평균과 표준편차

미숙아 고정관념	영아출생	성 별	M	SD
선호성	만삭아	남	18.23	6.18
		여	20.65	5.51
		계	19.40	5.95
	미숙아	남	12.85	5.46
		여	13.83	6.44
		계	13.32	5.93
인지성	만삭아	남	15.82	2.35
		여	15.61	2.52
		계	15.72	2.42
	미숙아	남	11.31	2.52
		여	10.47	2.66
		계	10.91	2.60
신체성	만삭아	남	14.89	2.85
		여	14.61	2.41
		계	14.76	2.64
	미숙아	남	11.13	2.85
		여	9.78	2.36
		계	10.48	2.69
사회성	만삭아	남	16.13	2.73
		여	16.11	2.41
		계	16.12	2.56
	미숙아	남	10.97	2.84
		여	10.67	2.31
		계	10.83	2.59
행동성	만삭아	남	27.10	4.25
		여	27.25	4.02
		계	27.17	4.11
	미숙아	남	17.74	4.78
		여	15.92	3.26
		계	16.87	4.19
잠재성	만삭아	남	20.33	3.26
		여	19.72	2.64
		계	20.04	2.97
	미숙아	남	13.21	3.28
		여	12.56	2.82
		계	12.89	3.07

<표 2> 영아의 성과 재태기간에 따른 미숙아 고정관념의 MANOVA

독립변인	hypo. Df	F
성	6	1.12
재태기간	6	46.87***
성×재태기간	6	1.38

***p<.001

<표 3> 영아 재태기간에 따른 미숙아 고정관념의 차이

미숙아 고정관념	HypoMs	ErrorMs	F
선호성	1397.24	12.95	107.92***
인지성	871.94	5.65	154.11***
신체성	692.68	3.68	188.00***
사회성	1051.35	6.34	165.77***
행동성	4007.69	15.84	252.97***
잠재성	1912.65	9.05	211.33***

***p < .001

더 조용하며, 더 잠자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Stern(1988)의 연구결과와 다소 일치하나 평균점수를 비교할 때 만삭아와 미숙아의 행동평가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어머니들은 미숙아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건강한 아동을 갖고 싶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들의 미숙아 고정관념, 낙관주의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어머니의 미숙아 고정관념, 낙관주의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미숙아의 사회성, 행동성, 잠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미숙아의 사회성이 낮다고 평가한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미숙아의 행동성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한 어머니도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느끼고 있고, 미숙아의 잠재성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이다.

〈표 4〉 미숙아 고정관념, 낙관주의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분석

	역기능적 상호작용	디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선호성	.03	.24	-.07
인지성	-.10	-.07	-.07
신체성	-.06	-.04	.05
사회성	-.26*	-.18	-.25*
행동성	-.28*	-.24	-.12
잠재성	-.28*	-.31*	-.24*
낙관주의	-.46**	-.38**	-.33*

* $p < .05$ ** $p < .01$

미숙아에 대한 사회성, 행동성, 잠재성 고정관념과 어머니의 역기능적 상호작용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미숙아의 사회성이 낮다고 인지한 어머니는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미숙아의 행동성이 소극적이라고 인지한 어머니는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며, 미숙아의 잠재성이 낮다고 인지한 어머니도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 미숙아의 잠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어머니 디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즉 미숙아의 잠재성이 낮다고 인지한 어머니의 디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이다. 미숙아의 사회성, 잠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역할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 미숙아의 사회성과 잠재성이 낮다고 인지한 어머니의 역할 스트레스가 높았다.

어머니의 낙관주의는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

관계가 있다. 낙관주의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낙관주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는 역기능적 상호작용도 적게 하고 디스트레스도 낮게 느끼며,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 어머니의 미숙아의 선호성, 사회성, 신체성, 인지력, 행동성, 잠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낙관주의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모 특성 변인으로 설정한 어머니의 미숙아의 선호도, 신체성, 인지성, 사회성, 행동성, 잠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낙관주의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셋째, 어머니들의 미숙아 고정관념과 낙관주의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미숙아 고정관념과 낙관주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낙관주의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사고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결과(Knight, 1985; Goodnow, 1988)와 일치한다. 낙관주의의 부모역할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은 18%였으며 부모-아동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유의한 설명력이 발견되었다. 부모자신의 디스트레스에 낙관주의가 주는 영향력은 다른 변인에 대한 영향력 보다 높았는데 이것의 설명력은 35%를 지니고 있다. 즉, 낙관적 성격의 소유자는 양육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부모자신의 스트레스도 낮게 경

〈표 5〉 미숙아 고정관념과 낙관주의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

종속변인	부모역할스트레스		역동적 상호작용		디스트레스	
	β	R^2	β	R^2	β	R^2
낙관주의	-.26*		-.29*		-.40**	
선호성	-.10		.00		.17	
인지성	-.11		.17		.15	
신체성	-.06	.18	.03	.23	.12	.35
사회성	-.21		-.13		.02	
행동성	.04		-.25		-.31	
잠재성	-.24		-.18		-.24	

* $p < .05$ ** $p < .01$

협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미숙아 고정관념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첫째, 어머니들은 미숙아에 대해 부정적 신념을 갖고 있다. 만삭아가 미숙아보다 더 매력적이며 귀엽다는 평가를 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예리한 용모를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였다. Stern의 연구들(Stern & Hildebrandt, 1984; Stern & Karaker, 1988, 1989a, 1992; Stern, Olexa, Kim, Moritzen & Vellutino, 1999) 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들이 나왔다. 미국의 어머니들도 한국의 어머니들 처럼 만삭아를 미숙아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어머니들은 미숙아의 신체적 크기가 만삭아보다 작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성에 미숙아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인지성, 사회성, 행동성과 잠재성 등의 특성에 대해서는 미숙아와 만삭아를 다르게 평가하지 않았다. 즉, 이들 특성에 대해서는 미숙아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한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는 이들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의 연구들에서는 선호성과 신체성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어머니들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미숙아의 선호성과 신체성 뿐만 아니라 인지성, 사회성, 행동성 등의 전반적인 특성에서 부정적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결과로서 시대가 변화하고 정보화사회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에서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가치관과 어머니들의 사고가 미국의 어머니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완전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미국 어머니들 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

므로 영아출생과 발달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미숙아 고정관념과 낙관주의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어머니의 미숙아 고정관념은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미숙아의 특성을 만삭아보다 낮게 평가한 어머니들이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낙관주의와 양육스트레스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낙관적 성향이 높으면 양육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낮다는 것이다.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Sameroff와 Feil(1985)의 연구에서 낙천적인 양육자로 행동하는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여유를 가지고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장을 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낙관주의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미숙아 고정관념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개인의 사고적 특성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하는 것은 세상을 인지하는 데 영향을 주고 세상에서 받는 영향을 수용하는 능력과도 관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삶을 낙천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은 외적 스트레스의 경험 또한 낮을 것이고 이를 극복하는 능력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미숙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스트레스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측정자료가 본인의 자녀가 아닌 타인의 자녀를 대상을 평가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만삭아를 가진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미숙아 자녀를 가진 어머니와 만삭아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미숙아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1) 구미향(1994). 영아와 모친간 애착과 후속 발달과의 관계 탐색.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 권미경(1987).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과 모성정체감 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권인수(1992). 정상아와 고위험 출산아의 모아 상호작용 양상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김경희(1998).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아동문제행동지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논문집, 19(1), 571-580.
- 5) 김미정, 손동우, 장영표, 차한, 최중환, 윤종구(1990). 미숙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출생빈도에 관한 통계학적 연구, 대한 간호의학회 잡지, 1(2), 224-234.
- 6) 김소영(1989). 모아 상태 및 모성역할 인지에 따른 산모의 모아애착행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태임(1991).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지각 및 양육태도와 초기수유 상황에서의 모아 상호작용양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8) 박영애(1985). 미숙아와 정상아의 영유아기 성장 발달상태 비교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5(3):62-73.
- 9) 백미례(1990).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영아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니 역할전환에 따른 어려움과 만족도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왕순임(1986). 지지적 간호가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1) 이보연(1992). 유아기 자녀의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신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2) 조결자(1993). 저체중 출생아와 정상아의 모아 상호작용 변화 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홍창의(1988). 소아과학, 4판.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193.
- 14) Abidin, R.R., & Burke, W. T.(1978). The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15) Abidin, R.R.(1990). Parenting Stress Index Manual(2nd ed).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16) Azar, A.T., Robinson, D.R., Hekimian, E., & Twentyman, C. T.(1984). Unrealistic expectations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maltreating and comparison mo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687-691.
- 17) Barmard, K, Bee, H., & Hammond, M.(1984). Developmental changes in maternal interactions with term and preterm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7, 101-113.
- 18) Barratt, M.S., Roach, M.a., Leavitt, L.A.(1996). The impact of low-risk prematurity on maternal-behavior and toddler outc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 581-602.
- 19) Belsky, J.(1996). Parent, infant, and social-contextual antecedents of father-son attachment secu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892-904.
- 20) Crinic, K. A., Ragozin, A. S., Greenberg, M. T., Robinson, N. M., & Baskam, R. B.(1983). Social interaction and developmental competence of preterm and full-term infants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54, 1190-1210.
- 21) Darley, J., & Fazio, R.(1980). Expectancy confirmation processes arising in the social interaction sequence. *American Psychologist*, 35, 867-881.
- 22) Dix, T.H., & Grusec, J.E.(1985). Parent attribution process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201-

- 233). Hillsdale, NJ: Erlbaum.
- 23) Dix, T.H., Ruble, D.N., Grusec, J.E., & Nixon, S.(1986). Social cognition in parents: Inferential and affective reactions to children of three age levels. *Child Development*, 60, 1373-1391.
- 24) Dix, T.H., Ruble, D.N., & Zambarano, R. J.(1989). Mothers' implicit theories of discipline: Child effects, parent effects, and the attribution process. *Child Development*, 60, 1373-1391.
- 25) Fogel, S.(1977). Temporal organization in mother-infant face-to-face interaction. In H.R, Shaffer (ED.). *Studies in mother-infant interaction*(pp 119-152). London: Academic Press.
- 26) Frodi, A., Lamb, M., Leavitt, L., & Donovan, W. (1978). Fathers' and mothers' responses to infant smiles and cri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 187-198.
- 27) Goldberg, S.(1977). Social-competence in infancy : A model of parent-infant interaction. *Merrill-Palmer Quarterly*, 23(3), 163-177.
- 28) Goldberg, S.(1978). Prematurity: Effects on parent-infant interactio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 137-144.
- 29) Goldberg, S., Perrotta, M., Minde, K., & Corter, C. (1986). Maternal behavior and attachment in low-birth weight twins and singletons. *Child Development*, 54, 34-46.
- 30) Goodnow, J.J.(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31) Hanson, M. J.(1984). A Typical Infant Development. Pro-de. Austin, Texas.
- 32) Holmes, T. H., & Rahe, R. 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metric Research*, 11, 213-218
- 33) Knight, R.(1985, April). Parental as developmental optimist,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oronto.
- 34) Marlow, D.R., & Redding, B.A.(1988). Textbook of Pediatric Nursing, 6th ed. Sanders Co.
- 35) Marshall, G. N., Wortman, C. B., Kusulas, J. W., Hervig, L. K., & Vickers, R.R.(1988).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pessimism: Relations to fundamental dimensions of mood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 36) Mills, S. L., & Rubin, K. H.(1990). Parental Beliefs about Problematic Social Behavior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8-151.
- 37) Mills, S. L., & Rubin, K. H.(in press). A longitudinal study of normative maternal cognitions and beliefs about social behaviors. *Merrill-Palmer Quarterly*.
- 38) Minde, K. (1993). Prematurity and serious medical illness in infancy: implication for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63, 1108-1119.
- 39) Nisbett, R., & Ross, L.(1980). Human inference: Strategies and shortcoming of social judg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40) Owens, E. B., Shaw, D.S., Giovannelli, J., Garcia, M. M. & Yaggi, K.(1999). Factors associated with behavioral competence at school among young boys from multi-problem low-income familie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0(2), 135-162.
- 41) Pearl, R., & Donahue, M.(1995). Four years after a preterm birth: Children's development and their mothers' beliefs and expectation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0, 363-370
- 42) Rubin, K.H., & Mills, R.S.L.(1990). Maternal beliefs about adaptive and maladaptive social behaviors in normal, aggressive, and withdrawn preschool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419-435.
- 43) Russell, C.S., Hobbs, D.F., Cole, S.P.(1976). Transition to parenthood: Problems and Gratification. *Journal of Marriage & Family*, 294-301.

- 44) Scheier, M. F., & Carver, C. S.(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45) Scheier, M.F., Carver, C.S. & Bridges, M.W.(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and trait anxiety, self 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46) Scheye, P.A., Teti, D.M., Laliberte, J.H., C.D., Meyer, W., Evans, L., O'Connell, M.A., & Viscardi, R.M.(1998). The vulnerable child syndrome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 Infant Studies, Atlanta, GA.
- 47) Smaeroff, A. J., & Feil, L. E.(1985). Parental concepts of development,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hillsdale, NJ: Erlbaum.
- 48) Stern, M., & Hildebrandt, K. (1984). Prematurity stereotype: The effects of labeling on adults' perceptions of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360-362.
- 49) Stern, M., & Hildebrandt, K. (1986). prematurity stereotyping: effects on motherinfant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7, 308-315.
- 50) Stern, M., & Karraker, K.H. (1988). prematurity stereotyping by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3, 255-263.
- 51) Stern, M., & Karraker, K.H. (1989a). Modifying the prematurity stereotype: The effects of information on nehaveive perceptions of infa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 1-13.
- 55) Stern, M., & Karraker, K.H. (1989b). Sex stereotyping of infants: A review of gender labeling studies. *Sex Roles*, 20, 501-522.
- 56) Stern, M., & Karraker, K.H. (1990). The prematurity stereotype: Empirical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1, 3-11.
- 57) Stern, M., Karraker, K.H. (1992). Modifying the prematurity stereotype in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and ill full-term infa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76-82.
- 58) Stern, M., Olexa, M., Kim, K.H., Moritzen, S., & Vellutino, F.(1999). The Longitudinal evaluator of the prematurity stereotype: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al markers. Paper presented to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ew Mexico.
- 59) Taylor, S. E. (1983).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39, 1161-1173.